

삼성의료원 핵의학과



병원과의 연계진료 등 다양한 것이었다.

삼성의료원 본관 건물 지하1층에 위치한 핵의학과는 주변에 식당, 은행, 편의점 등의 편리한 시설들이 있었고, 내부의 분위기는 병원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깔끔하게 단장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

서울 강남의 양재대로를 따라 수서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왼쪽편으로 보면 탁트인 도로에 높은 건물이 시야에 들어온다. 현대식 건물이면서 깨끗하고 단아한 느낌이 드는 건물이었다. 이 건물이 1994년 11월 9일 개원한 삼성의료원이다.

삼성의료원은 개원전부터 첨단 시설과 장비를 바탕으로 의료계의 새 전통수립을 선언하며 기존의 병원들과 일반인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아울러 각 매스컴의 지대한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삼성의료원이 기존병원과 차별화한 사항으로는 보호자 없는 병원, 병원시스템의 완전 전산화, PACS시스템, PET Scanner 등을 이용한 3차원 영상진료, 세계 최고의 병원이라는 Johns-Hopkins

다. 사무원의 안내를 받아 진광호 검사실장으로 부터 삼성의료원 핵의학과의 전반적인 소개를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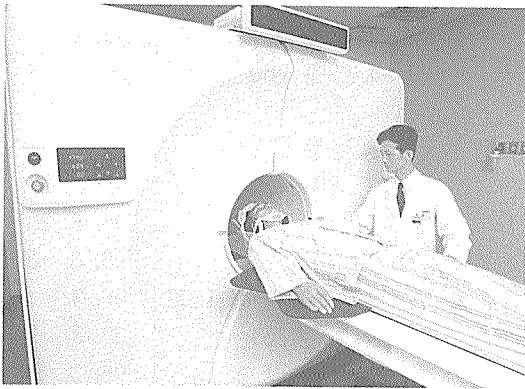
먼저, 인력구성을 보면 김병태 과장 외에 핵의학 전문의 2명, 전임의 2명, 전공의 1명, 화학박사 1명, 물리학 박사 1명, 병리사 11명, 방사선사 12명, 간호사 1명, 사무원과 보조원을 합하여 39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 1층에 체내검사실, 체외검사실, PET검사실, R/D실, 안전관리실, 접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 3층에 Cyclotron실 및 Hot lab이 위치하고 있는데 총 면적은 458평이라고 한다.

삼성의료원 핵의학과 업무는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었다. 각 Part에서 담당하는 주요 업무를 살펴보겠다.

체내검사실은 Single head gamma-camera 1대, Dual head gammacamera 2대, Triple head gamma-camera 1대 등의 장비를 갖추고 각종 장기(뇌, 심근, 폐, 갑상선 등 40여종)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주사하여 이를 영상화하고 뇌, 신장, 심장 등은 Computer를 이용한 연속적인 영상 및 3차원적 영상으로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관장한다.



체외검사실은 Automatic gamma-counter 1대, gamma-counter 1대, beta-counter 1대 등의 장비로서 혈액, 소변 등의 인체내 대사산물을 정량·정성적으로 검출하여 간염, 갑상선, 중양, 알레르기, 내분비 등의 각종 흐르른 80여종의 검사를 시행하므로써 각종 질환의 진단, 판정에 이용하는 검사를 한다.

PET검사실은 1994년 7월 국내 최초로 가동이 되어 환자의 검사를 시행한 곳으로서, 지하 3층의 Cyclotron실에서 생산된 C-11, N-13, O-15, F-18 등의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재료로 PET scanner 1대를 이용하여 각종 장기의 대사적인 이상유무를 영상으로 통해서 진단하는 첨단 검사실이다.

R/D실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곳으로서 보다 우수한 방사성동위원소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안전관리실은 삼성의료원에서 사용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보관·폐기의 관리,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직원의 피폭방사선량 점검, 측정장비의 관리 및 교정, 교육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한편, RI 계통설비를 살펴보면 각 검사실이나 치료실에서 배출되는 RI폐수는 지하 3층의 배수시설에서 자동적으로 24시간 감시 및 처리되며, 후드 및 배기설비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또한, 폐기물보관실이 있어서 가연성 및 비가연성 RI폐기물에 대한 저장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핵의학과는 김병태과장과 진광호 검사실장을 중심으로 과직원간의 원활한 인간관계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매년 2회 과의 Workshop을 갖고 각자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발표하는 시간을 주고 있으며, 매달 한번씩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자칫하면 소홀해지기 쉬운 과원간의 유대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있다.

삼성의료원을 떠나는 길에 본관 입구에서 젊은 경비원이 택시문을 열어주고 손님이 내리는 것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이 곳이 호텔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갖게하였다.

삼성의료원 핵의학과와 현재의 모습은 위로부터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 아래로부터의 부단한 노력이 결합된 이상적인 형태이며, 미래의 모습은 우리나라 핵의학을 선도해나갈 중심이 되리라는 생각을 해본다.